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외지인 60%...새정치 vs 무소속 접전 예고

광양시장

광양시장 선거는 3선의 이상을 현 시장의 불출마로 어느 곳보다 지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김재무 후보(49.61%)가 이정문 후보(46.91%)와 강준석 후보(3.48%)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유현주 후보가 출마했으며 무소속으로는 정현복, 정인화 후보가 나섰다. 여기에 경선에서 패배한 이정문 후보의 동생인 이성문씨가 무소속으로 출마, 5파전이 됐다.

■ 광양시장 후보

Table with 6 columns: Party Name, Candidate Name, Party Name, Party Name, Party Name, Party Name. Lists candidates for various parties including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and others.

도내 실업률 1위 지역경제 살리기 최대 쟁점

경선 탈락 이정문 동생 이성문 출마 표심 변수

이제 김재무 후보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광양제철 의존도 낮추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현복 후보는 "공공용지를 평당 80만원 이하에 공급해 153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정인화 후보는 "명품중소기업 육성과 미래첨단소재산업 도입 등으로 광양경제를 확 바꾸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래서 나다" =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재무 후보는 크레인·터미널·준설 등 고질적 광양항 3대 문제와 동서 화합지대 조성, 세풍산업단지·목성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에 답보 상태다"며 "시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 비전을 만들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으로 ▲임기내 일자리 5000개 만들기 ▲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에 난방비 반값 인하 ▲임산부 퍼스트카드 제 실시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 광양 건설 등을 제시했다.

고교생에게 연간 160만원 등록금 지원해 고등학교 의무교육 달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의 노령수당 지급 ▲광양보건대 도입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현주 후보는 제9대 전남도의원, 제18대 총선 광양시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 광양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특히 제19대 총선(광양·구례)에서 32.5%를 득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도·농·산 복합 자립형 균형 개발 ▲물·전기·가스 기초사용량 무상 공급 ▲생활임금제 실시로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성문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불법경선의 희생양이 된 형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즉흥적·감정적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이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출신 대학생에 등록금 50% 지원 ▲시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광양제철소 폐열활용 난방지원 확대 ▲장애인 전용 평생교육원 운영 등 형의 공약을 계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지방선거 후보자 29일까지 TV토론회

도지사 28일 밤 10시

도교육감 25일 오전 7시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전남도 및 22개 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토론회로, 각 후보의 공약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발의 예정이다. 다음은 선거별 토론회 일정.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6·4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선관위 주최 중계방송 일정

Table with 6 columns: Election Name, Date, Time, Broadcast Station, Election Name, Date, Time, Broadcast Station.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positions like Mayor, Education Commissioner, etc.



지난해 열린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

광양서 박진감 넘치는 모터사이클 대회

25일 40개팀 150여명 출전

박진감 넘치는 모터 사이클 대회가 광양에서 열린다. '2014 한국 KOLEA(대한 레저스포츠 경기 협회)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가 25일 광양시 도이동 월드컵마린센터 옆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사)대한레포츠(대표 최도현) 주최·대한레포츠경기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40개팀 150여명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터크로스'(Motorcross)와 '엔듀크로스'(Endurocross)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터크로스'는 모터사이클 크로스컨트리라는 의미로, 인공으로 조성한 트랙이 아닌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트랙

에 점프대와 코너구간 등 각종 장애 구간을 설치해 테크닉과 스피드를 겨룬다. '엔듀크로스'는 슈퍼크로스나 모토크로스 경기장 형태의 일정 크기와 형태의 경기장 안에 자연지형을 담은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속도와 기술을 다투는 경기이다. 경기 전날인 24일에는 24일 연습주행과 함께 시승행사도 마련된다. 대회 관계자는 "모터 사이클은 스포츠로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레저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터크로스'와 '엔듀크로스'가 '엔듀크로스'(Endurocross)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터크로스'는 모터사이클 크로스컨트리라는 의미로, 인공으로 조성한 트랙이 아닌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트랙

3개 선거구 8명 도전...2·3선거구 3명씩 출마 경쟁 치열

도의원

3개의 선거구에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제1선거구(광양읍·봉강·옥룡면)에는 현역 도의원 이용재 후보가 단독 추천으로 새정치연합 공천장을 받아 재선 도전에 나섰다. (주)백제 대표이기도 한 이 후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도 맡고 있다. 지난 2006년 비례대표 광양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2010년 도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에 무소속으로 박종근 국가직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이 도전한다. 그는 (사)한국 중요 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제2선거구(골약·중마동)에는 새정치연합 김태근, 통합진보당 조진호, 무소속 박형배 후보가 경쟁한다. 전 광양경제진흥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LG전자 동광양점 대표인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박형배 후보를 물리치고 공천장을 받았다. 조 후보는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다. 지난 2008년 민노당 후보로 광양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한국산화수소(주) 대표인 박 후보는 광양항 활성화시민행동 상임대표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제3선거구(옥곡·진상·진월·다압면·광영·태인·금호동)에는 새정치연합 강정일, 무소속 김선근·이경의 후보가 각각 출마표를 던졌다. 우윤근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인 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박필순 후보를 제쳤다. (사)광양시세마을회 회장과 호남일보 사장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이번이 첫 입후보다. 포스코 그룹사 경영지원실장 등 포스코에서 25년간 근무한 이 후

■ 광양 도의원 후보

Table with 3 columns: Election District, Candidate Name, Party Name. Lists candidate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이홍재, 박종근, 김태근, 조진호, 박형배, 강정일, 김선근, 이경의.

보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uskyeom' (유스퀘어점) restaurant. Features 'OPEN 30년 전통 돈까스' and 'Since 1983' branding. Includes a menu with prices for items like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and '소인(미취학) 4,000'. Contact info: 062) 671-1199.

Advertisement for 'Yehyang High-Speed Tour' (예향고속관광). Promotes 'VIP Limousine' services for group travel. Includes contact info: TEL.062.944.5775, FAX.062.944.5995.